

법화경 · 금강경 등 금니사경 황금 길상도 스승과 제자 전시

주재호 · 이순자 금니사경전... 6월 12일부터

6월 12일~18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문정 주재호 · 혜화 이순자 전시회에도 <법화경>을 주제로 한 전시다. <법화경>과 28종 변상도 외에 <약사경> <지장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의 금니사경 작품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황금 길상도 60점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 주재호, 이순자 작가가 하루 12시간의 작업 끝에 이뤄낸 결과다. 한 자씩 작업해야 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순자 작가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싶지만, 막상 하면 훨씬 더 또 하게 되더라”며 글자에 담긴 정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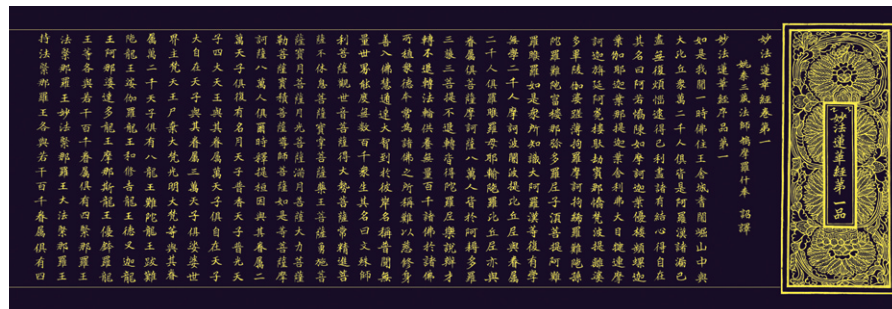
특히 <법화경>은 7만자를 길이 140미터 장지에 8년을 걸려 완성했을 만큼 방대한 규모다. 주재호 작가는 “일본에서 이미 2

년간의 전시(2011~2012, 총 6번)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칭송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될 법화경 2질 가운데 1질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외국에서 무명에게 가까운 시에가가 이룬 성과치고 대단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이번 전시를 기념해 법화경 서첩과 법화경 교본도 함께 발간된다. 전시회기간 중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작품 중 반바인경을 범보시할 예정이다.

주재호 작가는 사경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으며 국전 심사위원, 대구시전 심사, 한국 교육미술협회 서예대전 심사를 맡았다. 이순자 작가는 직지 세계문자 서예대전 대상, 국제유교 서예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02)720-1161

배현진 수습기자



문정 주재호 · 혜화 이순자 작가의 전시회가 6월 12일~18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법화경 작품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신중-불교의 수호신들展

9월 8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중(神衆)-불교의 수호신들'을 9월 8일까지 2층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연다. 조선 후기 신중도와 관련된 유물 27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는 모두 6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신중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석전도를 소개한다. 본래 비락을 무기로 악마를 징복한 고대인도 신들의 제왕 인드라였던 제석전은 조선 불화에서는 여신이나 귀부인의 형상을 하고 장수와 복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어 천룡도의 주인공인 위태천, 창조신 브라흐마(Brahma)였던 범천, 시바(Shiva)신에서 유래한 예적금강, 사찰의 관문인 천왕문에서 절을 지키는 수문장인 사천왕을 소개하고 마지막 신중에게 비는 마음에서 신중을 통해 민중이 무엇을 바랐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신중은 부처님이나 보살보다 위계가 낮은 불교의 수호신이다. 인도의 신화와 종교에서 유래했지만, 불교에서 이

를 수호해 부처와 그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으로 삼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신중(神衆)-불교의 수호신들'에 전시중인 제석전도.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포수(귀신 문고리)→용 문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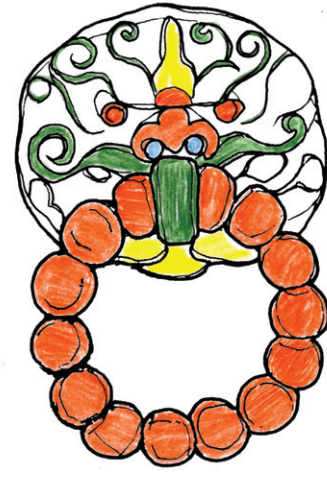
문고리는 '무량보주' 표현



그림①-1



그림①-2



그림①-3



그림①-4

문고리를 자세히 설명하니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문고리도 올바르게 알아야 용의 본질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상들은 문고리조차도 영화(靈化)시켰는데 반드시 용과 관련되어 있다. 용의 본질을 간단히 한 마디로 전해 줄 수 없으며, 한 마디로 이해할 수도 없다. 수많은 용의 다양한 조형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용의 본질을 이루며 따라서 인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동양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용의 개념을 정리하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용을 모르면 동양미술의 연구가 불가능한데, 용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학자가 한 분도 없어서 동양미술의 연구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용' 연구, 동양미술 이해의 기본

통일신라 초기685년에 세운 감은사의 탑에서 발견한 사리 장엄구의 외함(外函:바깥 상자)이 있다.(그림①-1) '불사리(佛舍利)'라는 존재는 석가여래와 같은 존재여서 그 석가여래의 불신(佛身)인 사리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리 장엄구는 가장 정교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므로 나는 '고대 공예품의 꽃'이라 부른다.

금당의 불세계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사리장엄구이다. 가장 바깥부분을 장엄하는 상자에는 네 면에 사천왕상을 두드러진 판으로 만들어 고정시켰다. 사천왕은 그 안에 있는 불신인 사리를 수호하는 존재이며 솜씨가 뛰어나서 그 당시의 고승이면서 뛰어난 예술가인 양지(良志)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각 면의 사천왕 양쪽에 용의 얼굴이 있고 용의 입에서 고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주들로 연이어 있다.(그림①-2) 도대체 이 도상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것을 귀면이라고 불렀으며 문고리라고 막연히 불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이 없으므로 문고리라고 말 할 수 없다. 이제 그 도상을 채색분석해 보면, 보주인 눈에서 긴 제1영기(영기)가 발산하고 있으며, 콧등에는 역시 보주가 있으며, 코 밑과 입 부분에서 역시 긴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그림①-3) 그러므로 보주들로 연이어 있는 고리 같은 것은 고리가 아니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무량한 보주들을 나타낸 것이다. 보주들로 환(環)을



그림②-1



그림②-2



그림③

만든 것은 고리가 아니고 '무량보주'를 상징한다. 또 하나의 무량보주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의 입에서는 무량보주가 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 문고리가 아니다. 용을 연구하여 온지 10년이 되었는데 오늘 날에야 이 연재를 쓰면서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무량보주를 새삼 절실히 인식하였으니, 여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평생 걸리는 것처럼 용의 본질도 역시 그렇게 평생 걸릴 만큼 표현방법이 무한히 다양하고 상징하는 바가 크고도 크다. '네 면의 각각 두 용면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도상들'이 있으니 모두 용의 여덟 얼굴이 있는 셈이다. 그 용의 여덟 입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즉 사리함 가운데 봉안되어 있는 사리로부터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문고리에 추상화 된 용의 모습

석가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는 것은 이미 다른 글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다루지 않는다. 석가여래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사리함 안의 사리로부터 무량한 보주들이 발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뿐인가. 사리 바깥 함 꼭대기에도 보주들이 연이어 있는 고리 같은 것이 있는

데, 이 역시 고리가 아니고 사리함 안의 사리에서 무량하게 발산하는 무량보주를 상징한다.(그림①-4)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월지 출토 용 고리가 있는데, 역시 용의 입에서 무량보주가 나오는 도상이지만, 사람들은 귀신의 얼굴에 고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니 그 올바른 상징을 알 수 없다. 사리함의 용 얼굴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며 채색분석해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그림②-1, ②-2)

월지 출토의 다른 문고리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실제로 문고리를 이러한 도상으로 만든 예가 있지만, 결국은 문고리를 영화(靈化)시킨 것이다.(그림③) 이 투각 영기문을 자세히 보면 그 위 부분이 도 2의 용의 얼굴 위 부분과 같지 않은가. 만기(萬記)를 터이되지만 이 투각 영기문 역시 용을 추상화한 것이다. 그 주변 둥근 테에 무량한 보주들이 역시 투각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둥근 고리 같은 모양은 고리가 아니고 역시 무량보주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무량한 보주들로 이루어진 무량보주를 단순한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강우방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 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친화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상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